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(2019년 10월 1주)

- 주캐나다대사관(2019.10.04)

< 10월 1주 주요 경제 동향 >

◈ 8월 캐나다 무역수지 9.6억 캐불 적자 기록
◈ 캐나다 항공사, FAA 지시로 보잉 737 기종 긴급점검 진행(10.3)
◈ Telus社, ADT社 7억 캐불 규모로 인수
◈ 미국, 캐나다산 희토류 확보 등 중대 광물 수입 다변화 추진 발생

1. 8월 캐나다 무역수지 9.6억 캐불 적자 기록

○ 지난 8월 캐나다 무역수지는 전월(7월) 1.4억 캐불 적자에 이어 9.6억 캐불 적자를 기록함.

○ 전체 수출은 506억 캐불로 전월 대비 1.8% 상승하였으며, 특히 고가 개인항공기 및 원유 미국 수출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임.

- 전체 수입은 515억 캐불로 전월 대비 1% 상승하였고,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수입 증가가 주요 상승 요인

[출처 : 캐나다 통계청, BNN Bloomberg(10.4)]

2. 캐나다 항공사, FAA 지시로 보잉 737 기종 긴급점검 진행(10.3)

○ 에어캐나다*를 제외한 캐나다 항공사들이 동체 균열 우려에 따른 미국연방항공청(FAA)의 요청으로 10.3일 보잉 737 Next Generation(B737NG) 기종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함.

* 에어캐나다는 B737NG 기종 미보유

○ WestJet, Sunwing Vacations 및 Transat은 B737NG 기종을 각각 43대, 40대 이상 및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, 점검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[출처 : CBC News(10.3)]

3. Telus社, ADT社 7억 캐불 규모로 인수

○ Telus 캐나다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전문보안 업체인 ADT社를 7억 캐불 규모로 인수할 예정임.

※ ADT는 약 50만 명의 고객 보유 및 근로자 1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의 주택·기업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

- 이번 인수 사업으로 Telus는 가정용 방범 시스템 및 스마트홈 보안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, 경쟁사인 Bell社도 2018년 AlarmForce社를 1.8억 캐불로 인수하는 등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사업에 진출하는 추세

○ 한편, Telus의 ADT 인수 건은 공정위 등 정부 승인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임.

[출처 : CBC News, Globe and Mail(10.2)]

4. 미국, 캐나다산 희토류 확보 등 중대 광물 수입 다변화 추진

○ 캐나다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, 미국과 중대 광물(Critical Minerals)에 대한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광물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임.

- 9.30일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이 필요한 중대 광물을 제공할 수 있다며, 특히 다양한 희토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

※ 트루도 총리 및 트럼트 대통령은 2019.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중대 광물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
○ 미국이 호주, 일본 및 EU와도 중대 광물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, 캐나다는 미국과 합의한 세부 협력 계획(안)을 연방총선(10.21) 이후에 확정할 예정임.

[출처 : Globe and Mail(9.30)]